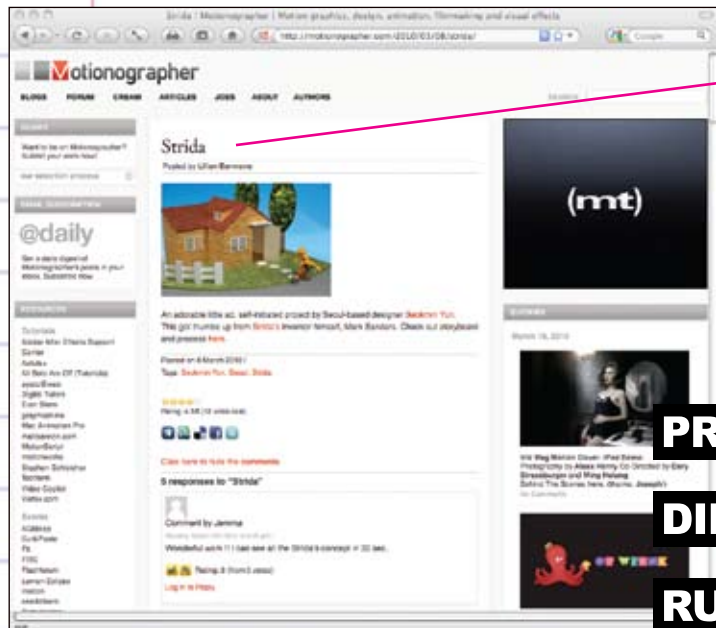


Check this movie out at www.3dartisan.com



Motionographer.com에 뜬 <Strida>영상은 3D아티산 편집부의 눈에 번쩍 띄었다. 그 컨셉이 스트라이다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귀여움, 실용성등이 잘 설명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Seokmin Yoon 이라는 한국인임이 분명한 이름 때문이었다.

PROJECT NAME STRIDA
DIRECTOR 윤석민
RUNNINGTIME 40s



공장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다. 제작기를 부탁하였을 때는 더 좋은 제작기도 많을텐데라며 겸손하였지만, 개인작업이 웹상에서 이슈가 되어, 스트라이다 자전거를 디자인한 마크 샌더스 역시 극찬한 아이디어는 3D아티산 독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꺼라 생각한다. 아래의 Motionographer.com의 답글에서도 보면 하나같이 그 명확한 컨셉과 스토리 전개에 감탄하고 있다.

Comment by Jemma:
 Monday, March 8th 2010 at 9:26 pm
 Wonderful work !! I can see all the Strida's concept in 30 sec.

Comment by salomanism:
 Monday, March 8th 2010 at 9:47 pm
 Wow, Great!!!!!! I like it!!!!

Comment by oeuf:
 Wednesday, March 10th 2010 at 7:42 am
 Very good, polished work. Enjoyed watching it many times. Designed well and flows from beginning to end. Good stuff!

Comment by BeniHop:
 Monday, March 8th 2010 at 9:54 pm
 marvellous work~! with a brilliant concept



R8

The Globe and Mail

Globe Travel

HOLIDAY GUIDE || TRAVEL GEAR



HAVE WHEELS, WILL TRAVEL
 Is your loved one heading somewhere warm? Help him get around with the Strida 5.0 - perhaps the most portable set of wheels on the road. Weighing in at 10 kilograms and with a collapsible triangular frame, the stylish bike stows away easily on planes, trains and automobiles; yet its handlebars are mounted horizontally to give riders an upright stance and clear view. Power revs to the rear wheels through a silent, greaseless Kevlar belt, keeping pant legs safe. From \$98. For dealers, see www.strida.com.

GIFTS TO GO

Looking for something to please the frequent flier in your life? Mercedes Sanati picks the best travel treats.



The Globe and Mail에 소개된 스트라이다 자전거

“친구가 스트라이다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본것은 처음이었는데, 일단 디자인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중 휴대성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우월하더군요. 그래서 이 강점을 부각시키는 영상을 만든다면 재밌겠다는 생각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션그래픽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하는 조건

모션그래픽의 영역은 상당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스타일이나 방식은 세분화 되기 마련이죠. 저는 이번 작업의 목

적을 상업성에 두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자전거를 홍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가장의 클라이언트를 두고 실무에서 작업하듯이 진행했어요. 효과 위주의 작업으로 간지 있는 영상을 만들기 보다 제품의 성격에 맞는 잘 정리된 스토리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해요. “어! 나도 저거 해봤는데. 아! 맞아. 나도 그때 그랬어.” 이런 말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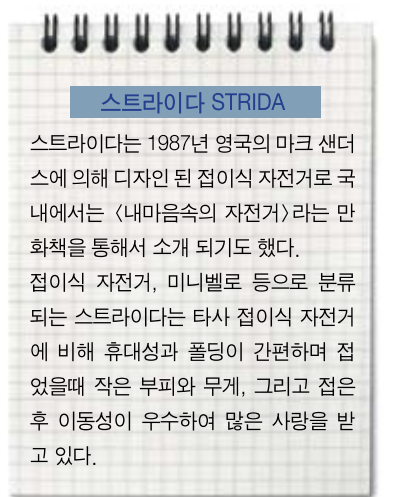
저는 그 부분을 작업할때 계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작업의 방향을 잃지 않게도 많은 도움을 주지요.



윤석민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민이라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시각패키지 디자인을 전공하고, 1년 반정도 GUI 디자이너로 일하였습니다. VDAS(Visual Design Art School)에서 VMG Regular, VMG Advance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프리랜서 모션그래퍼입니다.

www.seokminyun.com



스트라이다 STRIDA
 스트라이다는 1987년 영국의 마크 샌더스에 의해 디자인 된 접이식 자전거로 국내에서는 <내마음속의 자전거>라는 만화책을 통해서 소개 되기도 했다. 접이식 자전거, 미니벨로 등으로 분류되는 스트라이다는 타사 접이식 자전거에 비해 휴대성과 폴딩이 간편하며 접었을때 작은 부피와 무게, 그리고 접은 후 이동성이 우수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작업한 <스트라이다> 영상은 특히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는 것 같아요.

시각화 메시지



스트라이다 영상의 핵심 키워드는 삼각형과 폴딩이에요. 이 두가지는 스트라이다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큰 흐름이죠. 자료를 얻었던 관련 사이트에서는 스트라이다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삼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니크한 디자인을 보고 지어진 별명인것 같았어요. 그만큼 삼각형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었죠. 또한 접이식 자전거중 접어서도 끌고 다닐 수 있어 교통 연계성이 좋아 휴대하기 편한 자전거로 스트라이다를 꼽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메시지는 "The more you fold, the more you travel"입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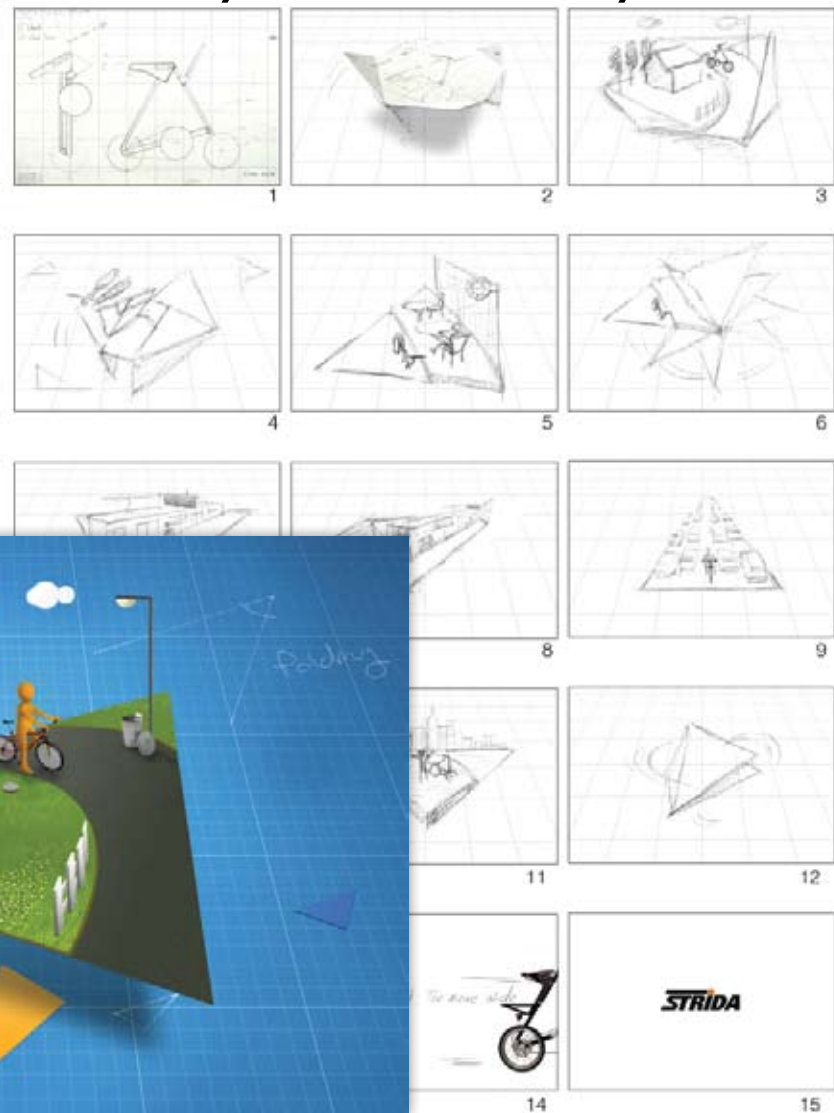
스토리 구성 방식은 메시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 공간의 확장 구조로 표현했어요. 처음에 집에서 나오고 그 다음은 카페, 지하철, 교통이 혼잡한 거리, 배 위에서 바라보는 도시까지 공간을 확장시켰죠. 공간끼리 바뀌는 트랜지션에서는 접히면서 펼쳐짐을 계획했어요.

자전거 디자인에서 파생된 삼각형을 시각화 시키기 위해 공간셋팅을 삼각형으로 했어요. 아래의 그림은 처음에 디자인된 아트웍이에요. 물론 결과물에서는 맥스에서 제작하면서 많이 수정이 되었지만 이 아트웍 한장이 전체 분위기를 잡는데는 충분했던것 같습니다.

AR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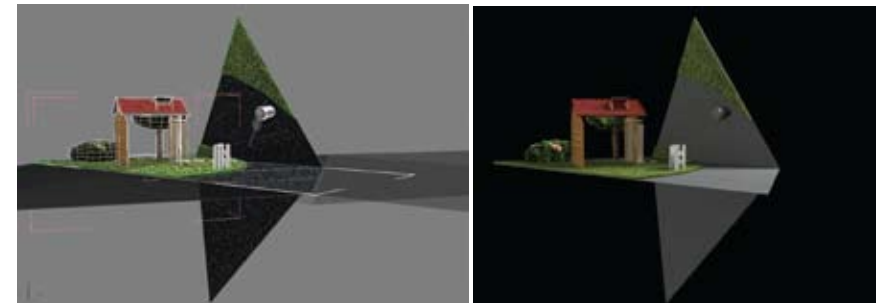


The more you fold, the more you travel



모션테스트

접으면 작아지는것이 일반적인데, 접는 느낌을 주면서 공간의 확장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플랜은 두개를 겹쳐서 위에 것은 접고 아래것은 펼쳐지는 방식을 썼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 공간이 펼쳐질때까지 앞 공간의 오브젝트 일부가 남아 있어야 공간이 확장됨을 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캐릭터의 동선, 오브젝트의 스케일 조정, 그리고 삼각형 바닥의 접히는 타이밍과 텍스처감등 여러번의 테스트 과정이 있었습니다.



상판이 접히면 아래판이 생성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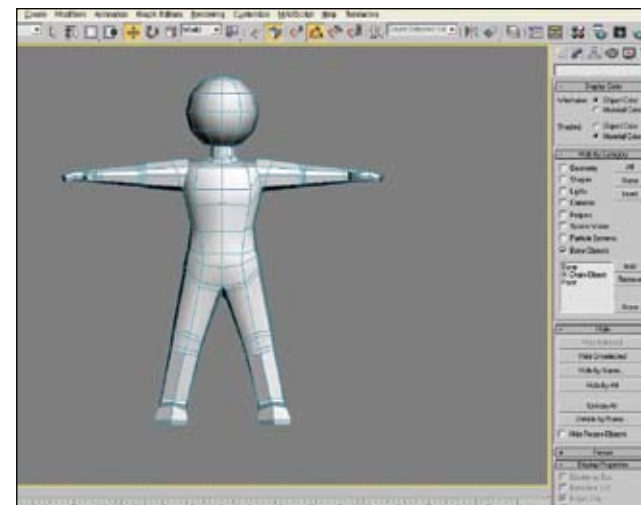
계단이 앞과 뒤의 씬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캐릭터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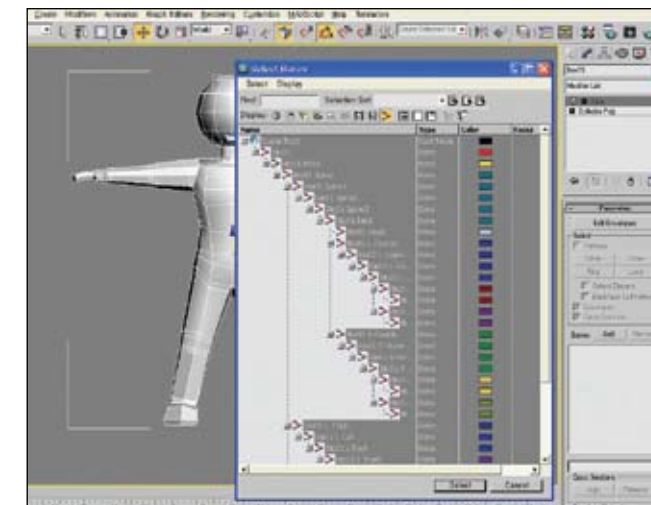
이번 작업을 위해서 자전거 관련 모션그래픽을 조사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 아무래도 자전거관련 영상에서 자전거만 따로 움직이기에 자연스럽게 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 또한 제품 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자전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사람이 안나오는 스토리도 하나 구상했었는데 아무리 해도 메시

지 전달이 약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등장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캐릭터화 시켜서 표현 요소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캐릭터는 심플한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시간면에서도 그렇고요. 캐릭터 모델링할때 주의한 부분은 바이패드 리깅을 위한 관절에 세그먼트 나누기였어요. 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 굽혀지는 안쪽과 바깥쪽의 세그먼트의 간격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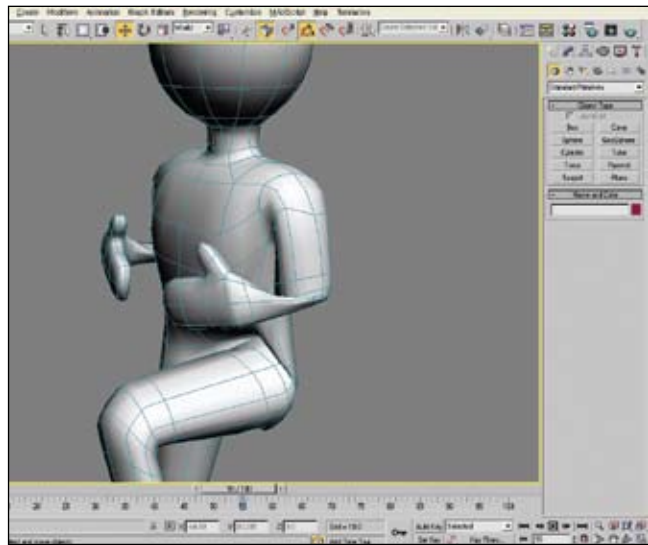
깅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바이패드에 스킨이 적용되는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어야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패드에 키를 주어 움직임을 보면서 리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래 이미지처럼 관절의 양쪽 웨이트 값이 균등해야 찌그러짐 없이 접힐 수 있습니다. 이과정은 팔꿈치, 무릎, 목등 모든 관절에 적용되었고 몇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리깅을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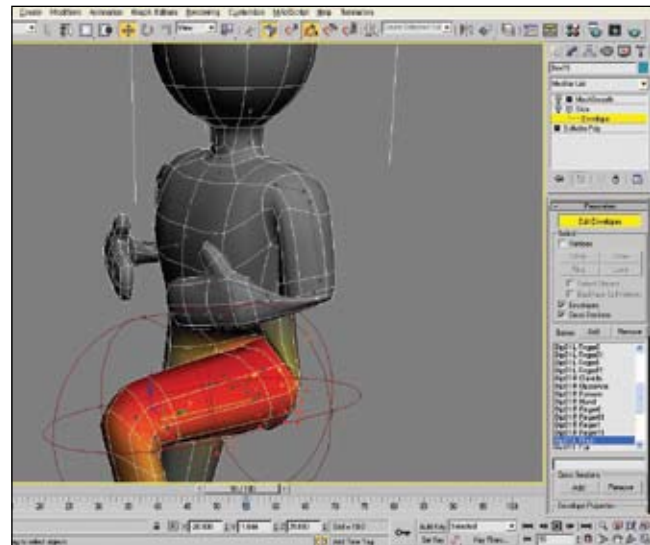
관절부분을 고려하여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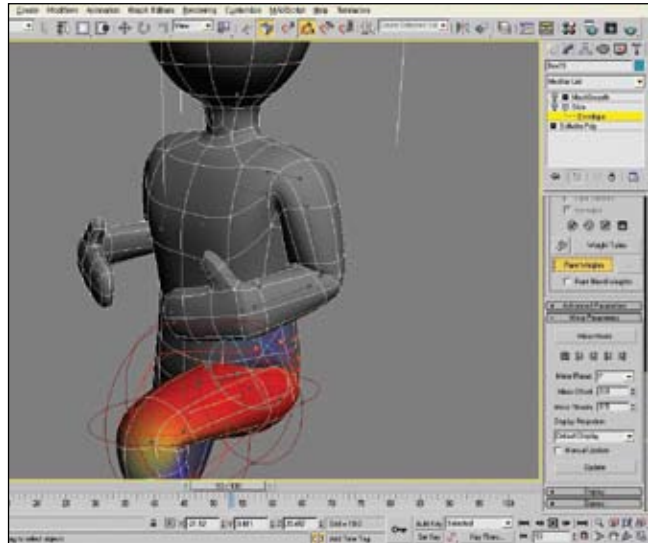
Skin 모디파이어를 이용하여 리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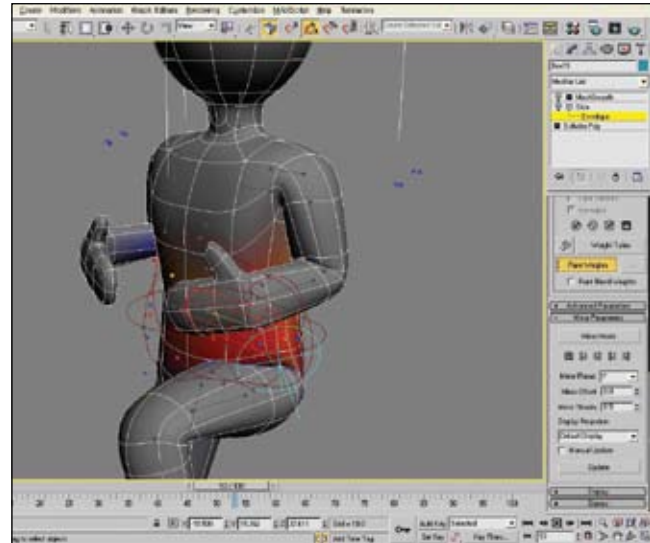
3 스킨 갓 적용시 관절이 찌그러지는 현상



4 바이패드에 키를 주어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웨이트값을 조정



5 연결 부위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디테일을 올림



6 세부적인 부분은 태블릿을 이용하여 Paint Weight기능을 활용하면 작업이 용이함



7 리깅 완료 후 모션을 준 캐릭터



트랜지션

리깅된 캐릭터는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는데 있어서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키가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키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도 바이패드를 스케일로 늘리거나 줄이면 리깅된 캐릭터의 비율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씬의 파일을 다르게 하여 캐릭터를 기준으로 다른 오브젝트 크기를 정했습니다. 이럴때 발생하는 문제가 조명과 맵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느냐예요.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비율로 줄이면 조명의 세기거나 맵핑 사이즈가 수치적으로는 같아 하더라도 렌더링 하였을때 다르게 보입니다. 미세한 차이라도 화면이 튀어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작업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간 모션 파일과 캐릭터 파일을 따로 작업하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이 방법도 공간은 계속 커지지만 캐릭터 스케일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 영상에 캐릭터를 맞추는 트래킹 작업이 될듯 싶습니다.



8 집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는 씬



9 카페 씬으로 트랜지션 되기 위해 공간을 줄인 모습

어떻게 Motionographer에 소개되었나요?

이번 작업이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마크샌더스과의 연결이 시초였습니다. 마크샌더스는 스트라이다를 개발한 영국의 디자이너입니다. 어느날 우연히 제가 만든 영상을 웹에서 보다가 스트라이다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는 메일이 왔어요. 가상의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제안한 모션그래픽이었지만 실제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목적 달성한거와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모션오그래퍼에도 신청을 하게 되었지요. 다행히 모션오그래퍼에도 소개되었고 이렇게 3D아티산과도 인연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작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까요?

저는 작업을 완료하면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죠. 그러면 다음 작업에 도움이 되고. 셀프프로모션은 자신을 알리는 것이기 이전에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장치인것 같아요. 부끄럽고 아직 미비하다고 해서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혼자만 보고 있는 순간 발전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픈할 수 있는 창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이용하세요. 디자인이 무엇이나고 했을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요. 셀프프로모션이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작업을 많이 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젝트 하나를 더 하려고 진행 중에 있어요. 이번 작업도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물도 좋은 반응을 얻어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웃음)

앞으로도 그의 재기발랄한 작업을 기대하며, 윤석민씨의 [스트라이다] 영상은 <http://www.seokminyun.com/motiongraphic/strida>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D